

# 이사부[金異斯夫] 우산국과 가야를 정벌한 신라의 장 군



이사부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 1 개요

이사부(異斯夫)는 6세기 대에 활동한 신라의 장군이다. 우산국(于山國)을 정복하고 가야(加耶)를 정복하는 등 전장에서 눈부신 전공을 세웠고, 중앙 정부의 고관(高官)이 되어 신라 정치의 실력자로 활약하였다.

## 2 이사부의 출신과 가계

이사부는 신라의 제17대 왕인 나물왕(奈勿王)의 4대손이며 휘부(喙部) 출신이다. 정확한 생년과 물년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사부라는 이름은 태종(荊宗), 혹은 이종(伊宗)이라고도 표기되는데, '태(荊)'는 이끼를 말하므로, 태종을 훈독하면 '잇부'가 된다. 단양적성비(丹陽赤城碑)에는 이사부(伊史夫), 『일본서기』에서는 이질부례(利叱夫禮)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사부의 성(姓)은 『삼국사기』에 김씨로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유사』에서는 박씨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사부가 나물마립간의 4대손이 맞다면 그의 성은 김씨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신라에서 성에 대한 기록에 혼란이 있는 경우로는 박제상(朴堤上)의 사례가 또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와 달리 박제상을 김제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은 당시 신라에서 성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연구도 있다. 후대에 성을 붙이면서 부계나 모계에 따라 일관성 없이 성을 붙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3 우산국을 정벌하다

신라는 505년(지증왕 6) 주군현제(州郡縣制)를 시행하였다. 이때 지금의 강원도 삼척시 지역에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면서 이사부를 군주(軍主)로 임명하였다. 이 시기 군주의 성격에 대해서는 군대와 민정을 아우르는 지방관으로 보는 견해와 해당 방면에 설치된 정(亭)이라는 군사 단위의 지휘관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어느 쪽이든 이사부는 신라의 동북부 해안에 위치한 주요 거점에서 강력한 군사권을 지닌 책임자가 되었다. 이사부의 활동 시기를 감안했을 때 그는 대략 5